

# 영암군, 시설하우스 고온스팀 토양소독

## 시설채소 토양병해충 방제 위한 시연회 개최

### 농약·화학물질 무사용으로 토양·수질 보호

영암군은 2일 도포면 김용의 농가 하우스에서 시설채소 토양병해충 방제를 위한 친환경 고온스팀 토양소독 시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번에 시연한 친환경 토양소독기는 농약이나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22°C 고온 수증기를 토양 30cm까지 투입하여 소독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농가들은 토양신증 및 시름을 병 방제를 위해 토양에 농

약을 살포 후 20일간 비닐 멀칭하여 토양을 소독한다.

이러한 방법은 농약비용 및 토양 처리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농민의 건강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고온스팀을 통한 친환경 방법으로 토양소독이 이루어진다면 농약으로부터 토양이나 수질을 보호할 수 있고 소독기간이 짧아 농가 경영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시설하우스 토



교육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 진도군, 저출산 등 해결

### 찾아가는 인구 교육 실시

진도군이 최근 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진도군생활개선회 회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사)인구와 미래정책연구원의 인구교育 전문강사 강지영 씨를 초청해 ‘행복한 미래를 위한 우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저출산 문제의 인식, 가족친화적 가치관 확립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방향 제시 등 토론식 강의를 진행했다.

강지영 강사는 지난 1960년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와 문제, 인구정책 변화과정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심각성과 해결을 위한 부부중심의 가족구성·양성평등의 중요성 등 다양한 방향으로 우리나라 인구 문제를 다뤘다.

특히 여성들의 일과 가정 양립의 문제점 해소 방안 등의 의견을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강의 방법으로 여성단체 회원들의 관심·집중도를 높이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한 회원은 “우리나라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 목포시, 목포근대역사관 전시 및 교육용 유물 구입

#### 19일까지 지역 독립운동 관련 서적·회화·사진 등

목포시는 목포근대역사관에서 전시 및 교육자료로 활용할 유물을 구입한다.

구입대상은 일제강점기 목포부(조선후기 무안군 포함)를 대상으로 우리 지역 독립운동과 관련된 서적, 문서, 고문헌, 회화, 조각, 공예품, 엽서·사진류, 민속자료 등 유물 및 자료 일체이다.

신청자격은 개인소장자(종종 포함), 문화재매매업자, 법인 또는

단체이며 유물매도 신청자는 오는 19일 까지 관련 서류를 준비해 등기우편(전남 목포시 수문로 32 트 윈스타 5층 목포시 도시문화재파, 우 58724) 또는 전자 메일(yedhyang814@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목포시는 유물매도신청 접수 후 서류심사를 거쳐 서류심사에 통과한 유물만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할 계획

이다.

유물매도 관련 서류는 목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도굴·도난·밀반입 등 불법유물은 매도신청이 불가하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에 구입하는 유물은 목포근대역사관 2관에 전시해 우리 지역 독립운동에 대해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관련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개인,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완도해양치유센터 건립 중앙투자심사통과

#### 22개 테라피 시설 조성 등 해양치유산업 중추적 역할

완도해양치유센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사업 시행 전에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로서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기초 지자체의 200억 원 이상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는 법적 절차이다.

완도군은 지난 5월, 기획재정부 보조금 적격성 심사에서도 ‘적정 평가’를 받으며 국비 지원 적정사업 선정에 이어, 중앙투자심사도 조건부 승인을 받으며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따른 업격하고 까다로운 중앙 정부 행정 절차를 마쳤다.

절차를 마치게 된 것은 신우철 완도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열정의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와 국회를 설 수 없이 방문하여 해양치유센터 건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완도군의 준비 사항 등을 적극 설명하여 이해를 시켜온 노력의 쾌거인 것이다.

이에 신우철 완도군수는 “2019년은 대한민국 해양치유산업 원년으로 완도군에서 해양치유산업을 최초로 추진하는 의미 있는 해이며, 국내 최초로 건립하는 해양치유센터가 국민 건강 증진과 일자리 창출 등 어촌경제 활력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해양치유센터가 완공되는 2021년까지 해양치유산업의 확장성을 도모하고 지역 브랜드로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자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완도=김광수 기자

교育에서는 보건소와 의약품 전문 지식이 풍부한 약사회가 함께 경로당, 보건지소 등 현장을 방문해 올바른 약물 복약지도, 안전상비의약품 바로 알고 사용하기, 건강 기초상담 등을 실시한다.

특히 가정 내 폐의약품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가까운 보건(지소·진료소)소나 약국으로 반납 해줄 것을 당부 하였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올바른 약 복용 습관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꾸준히 교육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 기자

### 해남군, 임산부 원스톱 지원 등록 관리

합계출산율 6년 연속 전국 1위 해남군이 임산부 원스톱 지원을 위해 등록 관리 사업에 나선다.

임산부 등록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라면 가능하며, 등록과 동시에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등록 임신부에게는 혈액형, 혈청매독검사, AIDS, 간염항원·항체검사, 풍진검사 등 12종의 무료

산전검사와 염산제(임신 3개월까지)·월분제(임신 16주 이상~분만 전까지)가 제공된다.

또한 임신부 영양지원사업 보충식품 구입비 월 10만원과 초음파·기기야 검진쿠폰 발급(1인당

13만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임산부 건강교실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출산 후에는 수유부 1일 영양권장섭취량을 100% 총족하는 임산부 영양식과 신생아 로션, 영양제 등으로 구성된 출산 맘 행복상자가 지원되며, 유죽기 무료하여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임신부에게 체계적인 산전·산후 건강관리를 제공해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장려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강진군, 마늘·양파 지원사업 ‘박차’

강진군이 최근 올면 대표농과 및 관계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대회의실에서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마늘·양파 지원사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2019년도 마늘·양파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협의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 및 흥보를 위해 마련됐다.

군은 마늘·양파가 군 주요 소득 작목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강진=김영일 기자

### 무안군,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

#### 약물 중복·과다 투여 부작용 예방 위해 마련



교育에서는 보건소와 의약품 전문 지식이 풍부한 약사회가 함께 경로당, 보건지소 등 현장을 방문해 올바른 약물 복약지도, 안전상비의약품 바로 알고 사용하기, 건강 기초상담 등을 실시한다.

특히 가정 내 폐의약품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가까운 보건(지소·진료소)소나 약국으로 반납 해줄 것을 당부 하였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올바른 약 복용 습관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꾸준히 교육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 기자

##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